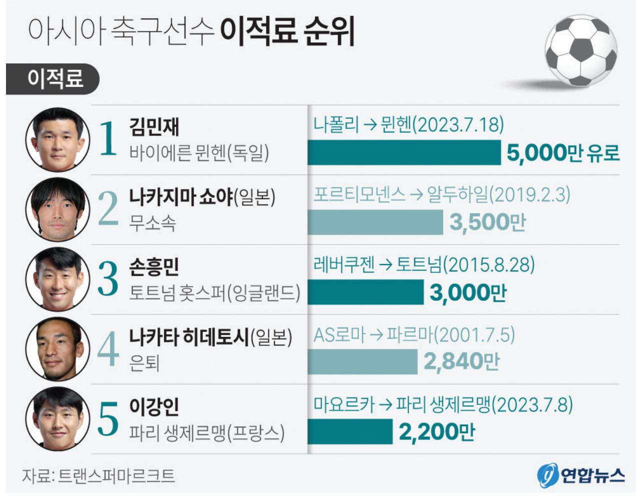
김민재, 뮌헨 입단…이적료 715억원 '아시아 최고'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2028년까지 5년 계약
등번호 3번·연봉 172억원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과 5년간 계약했다.바이에른 뮌헨은 19일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로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뛴 김민재와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했다"며 "김민재의 등번호는 3번"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철기둥' 김민재(26)가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다.

뮌헨 구단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나폴리(이탈리아)와 김민재의 이적 협상을 끝냈다.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했다"라고 발표했다. 등번호는 나폴리에서 달았던 3번 그대로다.

이로써 올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형 클럽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은 김민재는 '독일 명가' 뮌헨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축구 인생의 2막을 열게 됐다.

뮌헨은 자세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나폴리에 지급한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금액은 5000만 유로(약 71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은 1200만 유로(약 172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김민재는 이적료 부문에서 역대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 선수 최고 금액이었던 손흥민(토트넘·3000만 유로)을 뛰어넘어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한 이강인(2200만 유로)이 한국인 역대 최고 이적료 3위다.

김민재는 최근 PSG로 이적한 수비수 뤼카 에르난데스(27)의 공백을 채우면서 지난 시즌 뮌헨에 합류한 네덜란드 국가대표 센터백 마테이스 더리흐트(23)와 중앙 수비를 담당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뮌헨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 선수는 김민재에 앞서 정우영(슈투트가르트)과 이현주(베헨 비스바덴) 등이 있다. 하지만 정우영은 뮌헨 1군에서 2경기만 소화한 뒤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했고, 이현주는 뮌헨 B팀에서만 뛰다가 비스바덴으로 임대돼 사실상 '주전 선수급'으로 뮌헨 유니폼을 입은 것은 김민재가 처음이다.

지난해 여름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로 이적한 뒤 '핵심 센터백'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팀이 33년 만에 세리에A 정상에 오르는 데 큰 힘을 보탠 김민재는 2022-2023시즌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로 뽑히며 '월드 클래스 수비수'로 발돋움했다.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지난 3월 김민재의 시장가치를 5000만 유로로 평가했다가 지난 6월 6000만 유로(약 860억원)로 상향했다.

지난해 6월 나폴리 합류 당시 2500만 유로였던 그의 가치는 2.4배나 증가하며 손흥민(5000만 유로)을 뛰어넘어 유럽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선수 최고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이상 잉글랜드),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뮌헨 등이 '김민재 쟁탈전'을 펼쳤고, 결국 김민재는 '독일 명가' 뮌헨을 새 둥지로 최종 선택했다.

뮌헨 구단은 김민재 영입에 큰 공을 들였다.

지난달 15일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던 김민재가 3주 훈련을 마치고 지난 6일 퇴소했는데, 뮌헨 구단은 퇴소일에 맞춰 독일에서 의무팀을 한국으로 직접 파견해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했다.

보통 선수들이 입단 계약서 서명 전에 구단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뮌헨은 김민재의 편의를 위해 직접 의무팀을 파견하는 수고를 감수했다.

뮌헨은 김민재의 이적을 공식 발표하면서 메디컬 테스트에 대한 '뒷얘기'를 담은 비디오 클립도 함께 공개했다.

뮌헨 구단은 김민재에게 유니폼과 인형을 선물했고 김민재는 독일어로 "뮌헨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재입니다"라는 인사말도 남겼다.

국내에서 입단을 앞둔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 김민재는 지난 17일 출국해 뮌헨에 도착한 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이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민재는 입단식을 마친 뒤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했다. 뮌헨 구단도 트위터에 김민재가 훈련을 시작하는 모습과 함께 트레이닝장에서 새로운 팀 동료와 차례로 인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한편, 한국 선수가 독일 무대에 진출한 것은 1978년 12월 '차붐' 차범근이 다름슈타트에 입단한 게 시초다.

박종원, 박상인, 김주성이 1980~90년대 분데스리가에서 뛰었고, 이후 차두리, 안정환, 이영표, 손흥민, 구자철, 지동원, 박주호, 홍정호, 류승우, 김진수, 정우영, 권창훈, 황희찬, 이재성 등이 진출했다.

수비수로 독일 무대를 가장 먼저 밟은 선수는 2001년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 입단한 수비수 심재원이었다. 다만 당시 프랑크푸르트는 2부리그였다.

이후 이영표, 박주호, 홍정호, 김진수 등이 수비수로 분데스리가 무대를 뛰었고, 김민재가 '한국인 분데스리가' 수비수 계보를 잇게 됐다. /연합뉴스

임성재가 19일 디오픈 골프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영국 로열 리버풀 골프클럽에서 연습라운드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오픈 골프 개막…'토끼' 켑카·'거북이' 캔틀레이 동반

디오픈 골프 대회 1, 2라운드 조 편성이 얄궂다.

대회조직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조 편성에 따르면 늦장 플레이로 악명 높은 세계랭킹 4위 패트릭 캔틀레이(미국)는 늑장 플레이를 싫어하는 브룩스 켑카(미국)와 1, 2라운드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둘은 20일 오후 5시36분 1번 홀에서 티오프한다.

캔틀레이는 플레이가 느리기로 악명이 높다. 반면에 켑카는 플레이가 아주 빠른 편인 데다가 느린 플레이를 참지 못한다.

캔틀레이와 켑카는 지난 4월 마스터스 때 늑장 플레이로 충돌한 적이 있다.

캔틀레이 뒤에서 경기를 치른 켑카는 당시 "앞조 선수가 정말 느렸다. (나와 같이 경기한) 욘 람은 7번이나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기다리기 일쑤였다"고 공개적으로 캔틀레이의 늦장 플레이를 비난했다.

캔틀레이는 "우리도 앞 조가 플레이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느라 그랬다"고 해명했지만, 둘의 감정은 이미 상했다.

캔틀레이만큼은 아니라도 플레이가 느린 마쓰야마 히데키(일본)도 같은 조에 편성돼 켑카한테는 초반부터 악재다.

이 소식을 전한 매체 기사에는 "켑카가 안쓰럽다. 캔틀레이와 마쓰야마는 빙하나 나무늘보처럼 움직인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20일 오후 10시 59분에 세계랭킹 3위 욘 람(스페인),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와 1라운드 경기에 나선다.

LIV 골프 소속으로 이 대회 타이틀 방어에 나서는 캐머런 스미스(호주)는 20일 오후 5시 58분에 US오픈 챔피언 윈덤 클라크, 그리고 잰더 쇼플리(이상 미국)와 티샷을 날린다.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스미스 바로 앞에서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애덤 스콧(호주)과 경기에 나선다.

막차로 디오픈 출전권을 딴 안병훈은 오후 2시46분 라이언 폭스(뉴질랜드), 루카스 허버트(호주)와 함께 1라운드를 시작한다. 이경훈은 오후 5시25분 데이비스 라일리(미국), 세미가와 타이가(일본)와 동반하고 김시우는 오후 6시20분 캐머런 영(미국), 브라이슨 디섐보(미국)와 티오프한다.

김주형은 오후 9시4분 톰 호기(미국), 아브라암 안세르(멕시코)와 동반하고 임성재는 오후 10시37분 키건 브래들리(미국), 호아킨 니에만(칠레)과 1라운드에 나선다. /연합뉴스

광주FC 이순민·티모 '팀K리그' 합류

27일 스페인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출전

이순민

티모

광주FC의 이순민과 티모가 스페인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9일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 나설 팀K리그의 '픽 일레븐' 명단을 발표했다.

팀K리그는 팬 투표로 선발된 '팬 일레븐'과 코칭스태프가 선정한 '픽 일레븐'으로 구성된다.

지난 17일 각 포지션별 최다 득표를 얻은 11명의 '팬 일레븐'이 확정됐고, 이날 홍명보 감독과 최원권 코치가 선정한 '픽 일레븐'이 공개됐다.

공격수(FW) 부문에는 소속팀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제르소(인천)와 제카(포항), 헤이스(제주)가 선정됐다.

미드필더(MF) 자리에는 '랩하는 축구선수' 이순민(광주)이 팔로세비치(서울), 한국영(강원)과 포진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의 광주 티모는 '골 넣는 수비수' 그랜트(포항), 이기제(수원), 황재원(대구)과 수비수(DF) 명단에 포함됐다.

올 시즌 전 경기, 전 시간을 소화하면서 울산현대의 1위를 이끌고 있는 '국가대표 수문장' 조현우는 골키퍼(GK)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팬투표에서는 올 시즌 전 경기 출전 중인 대전 골키퍼 이창근이 1위를 차지했다. 이순민은 2017시즌 광주에서 프로 데뷔한 뒤 군복무 시절을 제외하고 광주에서만 활약한 '원클럽맨'이다.

왕성한 활동량과 적극적인 압박, 투지가 장점이며 다재다능함으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K리그2 베스트 11에 선정됐으며 올 시즌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 23라운드 대구FC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를 소화했다. 또 팀 부주장으로 주장 안영규를 도와 리더십도 발휘하고 있다.

티모는 올 시즌 새로 광주에 합류한 네덜란드 출신 센터백으로 강력한 헤더와 대인마크, 우수한 빌드업 능력이 돋보인다.

태클, 인터셉트, 경합 등 각종 수비 지표에서 팀 내 1위를 장식하고 있다. 패스 성공 횟수는 리그 내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2골도 만들었다.

한편 팀K리그와 아틀레티코가 맞붙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은 2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30일 2차전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의 대결이 이뤄진다.

◇팀 K리그 선수 최종 명단(22명)

▲FW : 나상호(서울), 이승우(수원FC) 제르소(인천) 제카(포항) 주민규(울산) 헤이스(제주) ▲MF : 이순민(광주) 세징야(대구) 배준호(대전) 백승호(전북) 팔로세비치(서울) 한국영(강원) ▲DF : 티모(광주) 그랜트(포항) 김영권(울산) 설영우(울산) 안톤(대전) 이기제(수원) 정태욱(전북), 황재원(대구) ▲GK : 이창근(대전) 조현우(울산)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